

## 민화의 미적특성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송혜련\*·김혜경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강사\*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 요약

현대 패션은 한 지역의 문화나 디자인이 세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차별화된 아름다움의 표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전환과 창의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21세기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유통개방과 소비자의 고감각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가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인 미로서 받아들여질 때 국제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민화는 민중에 의해 그려졌고 발전된 대중적 예술로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염원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민간예술이다. 민화의 화려한 색채와 조형적 예술양식이 복식에 어우러져 다른 미를 창출했을 때 세계 패션 시장에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민족의 미의식과 정감이 표현된 옛 그림으로 소박한 감정과 생활미가 담겨져 있으며 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는 민화의 미적 특성을 현대적 시각으로 변용하고 형상화시켜 민화를 의상디자인에 응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미를 살려 우리의 민족정서를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세계화된 독창적인 현대 의상디자인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민화에 관련된 문헌, 선행 연구 자료, 잡지책, 회화 그림, 패션관련 도록,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대패션작품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2000년 S/S 컬렉션부터 2011년 S/S 컬렉션까지 국내외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들과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였다. 민화의 미적 특성을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으로 도출하여 이를 응용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의상디자인 작품 4점을 제작하였다.

주제어: 민화, 미적특성, 의상디자인

위 논문은 2010학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접수일: 2011년 3월 4일, 수정논문접수일: 2011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 2011년 3월 22일

교신저자: 송혜련, songiya@hanmail.net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21세기에 접어들어 네트워크의 발달은 다국적화와 정보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물결에 적응하면서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표현하고 시장의 유통개방과 소비자의 고감각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 지역의 문화나 디자인을 통하여 그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문화의 고유한 자주성을 표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의 역사성, 지역성, 주제성 확립을 위해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디자인이 고유의 전통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권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인 미로써 받아들여질 때 국제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화는 민중의 삶속에서 태어나 겨레의 신화, 종교, 민족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귀중한 그림이다. 민화에는 민족의 가장 본질적인 의식과 정신문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한 회화양식이다. 민화만의 예술적 특징과 조형적 특성은 어느 다른 회화보다 민족의식이 뛰어나고 독창적인 회화이다.

민화는 사회적 배경, 풍토적 배경, 종교적 배경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발전되어 왔다. 민화는 하나의 예술장르로서 고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예술품으로 장식되기도 하고 일반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표현하는 민중화로써 하나의 생활용품으로도 널리 사용되었다. 그만큼 민화에는 본능적으로 서민의 미적체험이나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다.

19세기말 유행한 민화의 과격적인 양식은 대중의 의식을 일깨우는 해방의 미술로서 오늘날 예술에서 그 형식적 차용이 가능하다. 섬세한 표현의 장식성과 실용성을 함께 지닌 민화의 예술성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민화는 우리의 민족의식뿐 만 아니라 우리만이 가

지고 있는 뛰어나고 창의적인 작품들이 많아 20세기 이후 민화의 조형성을 찾으려는 연구가 다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민화가 현대 예술에 도입 될 때 단순한 복제나 전통의 회귀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대중적 정서와 쉽게 만날 수 있는 형식으로 발전하고 계승되어야 한다. 표현적 미적 특성에서 단순히 전통적 소재와 표현기법만을 차용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 생활 습관, 삶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내용적 미적 특성이 담겨있는 예술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 본 연구에서 민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가늠하고 그 표현의 산물인 우리 민족의 예술 작품을 재해석하고 그것을 현대적 시각으로 변용, 형상화시킴으로써 민화의 가치를 대중예술로 한 번 더 발견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민족의 미의식과 정감이 표현되고 소박한 감정과 생활미가 담겨져 있으며 민족의 정서를 상징하는 민화의 미적 특성을 연구하고 민화의 현대적 변용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 전통미를 살린 세계화된 독창적인 현대 의상디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 전통미의 현대적이고 창조적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문화의 가능성을 국제무대에 알림과 동시에 차별화 될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여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민화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해 이론적 고찰에서 민화의 정의와 개념, 발생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민화가 가지고 있는 미적 특성을 표현적 미적 특성에서 형태, 색채, 구도를 고찰하고, 내용적 미적 특성에서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그리고 실용성을 도출하고 그 조형성을 알아보았다.

둘째, 민화를 응용한 디자인 실증분석을 위하여 민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작가들과 작품들을 분

석함으로써 민화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민화를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사례를 위해 2000년~2011년 국내외 컬렉션에 나타난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민화의 미적 특성을 바탕으로 민화의 모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오늘날 소비자들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독창적인 의상디자인 작품 4점을 제작하였다. 의상디자인 작품 4점은 2007 S/S 서울 컬렉션에서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민화에 관련된 문헌, 선행 연구 자료, 잡지책, 회화 그림, 인터넷 자료를 참고로 이루어졌다. 현대패션 실증분석을 위하여 2000년 S/S 컬렉션부터 2011년 S/S 컬렉션까지 국내외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디자이너들과 작가들의 작품을 활용하였고 그 결과 민화를 응용한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의상디자인 작품을 제작하였다.

## II. 민화의 일반적 고찰

### 1. 민화의 정의와 발생과정

민화(民畵)란 백성의 그림이다. 여기서 민(民)은 귀족과 반대되는 뜻으로, 지배계급이 아닌 민중, 민간을 의미한다. 민화란 일반대중의 그림, 민간의 그림, 일반서민의 그림이다. 민화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간에게 전승되어 온 이름 없는 서민들에 의해 그려진 것으로 우리의 민족 고유의 생활 철학과 감정, 미의식과 정감이 회화의 형식으로 구체화된 주제성이 강한 그림으로 대중화의 전통 속에 근거하고 있다.

민화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은 야나기 무네요시이다. 그는 1929년 3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민예품 전람회에서 “민속적 회화”라는 의미로 민화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1937년 2월 일본의 월간 『공예』지에 기고한 공예적 회화라는 글에서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에 의해 그려지고 민중에 의해 유통되는 그림을 민화라고 하자고 주장했다.

민화를 역사적으로 볼 때 선사시대의 모든 원시미술과 맥락을 같이하며 특히 민화가 갖고 있는 소재나 주제들은 청동기나 석기시대의 암각화에서도 보여 진다. 가장 오래된 울주 대곡리 바위그림은 사냥물인 어류, 동물, 사냥하는 장면, 주술을 행하는 장면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주술신앙으로 식량을 안전하고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한 염원이 담겨 있는 이미지들이 바위에 그려져 있다. 보다 많은 공통점들이 삼국 시대의 고분벽화나 유물에서 발견되기도 했다.<sup>1)</sup>

고구려의 사신도에는 동서남북의 방위를 나타내고 우주의 질서를 지키는 네 가지 상징동물, 즉 청룡(靑龍), 백호(白虎),朱雀(朱雀), 현무(玄武)가 각각 그려져 있다. 이 가운데 특히 호랑이와 용은 조선시대 민화에도 자주 등장하는데, 고분 벽화시대에 널리 통용되던 체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신도의 네 마리 동물 형상은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의해 되풀이 되어 그려지고 정형화되어 조선시대 민화를 낳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화는 조선후기에 자생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되풀이하여 모방되면서 서서히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sup>

조선시대에 민화는 왕족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공간에 장소와 의식, 계절에 맞는 그림을 장식하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실용과 장식을 목적으로 빈부의 차이와 전통 사회의 계층을 초월해 전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승유여불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정화와 교육적 귀감을 목적으로 하는 효제도와 문자도의 민화형태가 나타나기도 했다.<sup>3)</sup>

민화가 순수한 회화양식으로 화폭에 옮겨져 본격적인 제작이 이루어진 것은 조선시대 말기이다. 수세기 동안 중국 회화권의 범주에 속하는 중국화의 한 부분으로서만 인식되었던 조선회화는 17, 18

세기의 시대적 상황 아래서 자신의 독자적인 위치를 찾았다. 17, 18세기 조선후기 사회는 실학사상의 대두와 대동법의 시행 등으로 화폐가 유통되고 상업 기반이 형성되어 신흥자본주의가 출현하게 되었으며, 예술에 있어서는 새로운 창작의식과 함께 서민예술이 출현하게 되었다. 조선후기에 접어들어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신분제도가 와해되어 감에 따라 지금까지 양반계층의 그늘에서 생산과 수탈의 악순환을 겪어 왔던 일반 평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가지기 시작해 그림의 새로운 수요층은 하류 계급까지 확산되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조선후기의 전통 회화도 화의(畫意)적 측면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회화는 대체로 일반과 가까워지고, 또 생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하여 한국적인 회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민화는 지금까지 왕족, 귀족, 사대부 계층만 독점적으로 향유하던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새로운 수요층으로 부상한 평민계층의 취향에 맞는 그림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실학사상이 추구하던 민본사상이 대두되면서 양반계층에 대한 풍자적 내용이 담긴 현실주의 지향의 해학성이 두드러진 풍속화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 시대에는 소박하고 아름다운 민중예술이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정식 도화원의 화가가 되지는 못했지만 일반 백성 중 그림에 재주가 있는 사람들에 의해 소박하고 생활에 직접 관계되는 민화가 그려지게 되었다.<sup>4)</sup>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는 양반. 중인은 물론이고 공상천노(工商賤奴)에 이르기까지 백성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서민예술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민화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선사시대 원시미술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본 결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화들은 거의 조선시대 후기에 그려졌다.

## 2. 민화의 미적특성

한국의 민화는 전통 회화를 모방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주제와 기법이 오랜 세월동안 민중의 삶의 양식에 의해 정착된 그림이다. 그래서 실제감 있게 그린다는 것이 중요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되풀이되어지는 과정에서 평면적인 처리가 보다 모사하기 쉬웠기 때문에 점차 사실성에서 멀어지면서 형태, 구도와 색채 등의 표현적 특성으로 변모되었다. 민화에서는 형태, 색채, 구도와 같은 표현적 특성을 통하여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과 같은 내용적 특성을 읽을 수 있다.

### 1) 표현적 미적 특성

#### (1) 형태

회화에서 형태 표현은 이미지 전달방식 중의 하나이다. 동양화에서 선으로 윤곽을 표현하여 의미를 전달하였고, 서양화에서 색채보다는 면을 중요시하여 전체적인 구조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였다. 한국 민화에서 형태 표현은 선과 색채를 사용하여 평면적 구조 속에서 관념적인 조형공간으로 이미지를 구체화시켰다.

민화의 선 표현은 기존의 필법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묘사하는 하나의 테두리, 즉 윤곽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필선의 강약이나 기운에 무관심한 채 사물의 윤곽을 중요시하면서 외각을 그리고 그 안에 색을 칠했다. 일반적으로 민화에 보이는 선의 형태는 두툼하고 힘차게 표현되어 있으며, 거의 일정한 굵기로 부드럽게 표현하며 모난 데가 없다.

민화는 평면적으로 그려졌다. 화면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입체감이나 사물 상화간의 공간감이 무시된 채 평면화 되어있다. 민화는 입체감을 주어 실제감 있게 그리는 것이 중요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되풀이 그려지는 과정에서 평면적인 처리

가 묘사하기 쉬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민화는 입체감보다는 각각의 면이 지닌 밝고 강한 색채 효과를 중요시 여겨 오늘날 팝아트와 같은 구성면이 나타난다.

민화의 형태 표현은 윤곽적인 선 처리로 표현하고 있어서 많은 경우 자유롭게 단순화나 과장되기도 또는 반복적인 겹쳐짐으로 도식화되어진다. 이러한 민화의 선들의 표현은 세련되거나 필력이 정통 동양화와 같은 화풍을 갖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순박하고 변화 있는 선들을 표현함으로써 기존의 화풍과 다른 특징을 부각시켰다. 그 표현은 현대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의 독특한 하나의 특성을 드러낸다 하겠다. 예컨대 도식화된 선은 컴퓨터 작업에 용이하며 실크스크린으로 대량생산된 팝아트의 선과 유사하다.

홍성훈(2009)은 한국 민화에서 볼 수 있는 형태상의 특성을 ‘반복성, 복합성, 추상성으로 요약된다.’<sup>9)</sup>고 하였다.

첫째, 반복성의 의미는 같은 형태로 반복되는 두 가지 이상이 형상을 거듭하여 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반복행위의 조형양식은 순환되는 자연의 원리 속에서 발생되고 순화되며 대상과 일심동체가 되는 한국인의 조형의식 구조의 표본이며 단순하고 추상적인 진리가 형성될 수 있는 조형양식이라 하겠다.

가령 잉어비늘의 배열은 반원 모양의 무늬들이 단위형태로 중첩되어 반복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배열의 특징들이 효과를 극대화하여 미적 특징이 되고, 중첩에 의해 깊어진 새로운 또 하나의 공간적 차원을 표현 할 수 있다. 호피도는 점, 선, 색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화면의 평면구성을 통하여 점, 선, 색을 반복하면서 화면을 처리하였고 이는 평면 속에서 입체감과 생동감을 드러낸 것이다.

모란도 8폭 병풍은 두 개의 화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그려 구성하여 적(赤), 황(黃), 백(白) 색의 큼직한 꽃송이의 잎을 풍성하게 그려 넣어 화

려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을 준다.

둘째, 민화의 표현 양식은 두 가지 이상의 양식이 합쳐지는 복합작용에 의해서 생략과 가감을 통한 대상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인 민화 작품들은 복합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백수백복도는』 다양한 서체의 수(壽)자와 복(福)자를 화면 가득히 메워 그린 그림으로, 장수와 복을 많이 받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획의 모양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그리는데, 이 그림은 전서체(篆書體)의 글자 수(壽)자와 복(福)자를 기본 요소로 하고 사이에 소, 토끼, 금계, 두꺼비 등의 동물과 새, 신선, 불수 등 서상물(瑞相物) 반복적으로 그린 점이 특이하며, 글자의 모양도 물고기, 곤충, 송사리 등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민화의 추상성은 까치호랑이에서 볼 수 있듯이 비재현적인 표현 형태로 호랑이가 전체 화면을 압도하며 고도로 추상화되고 기하학적인 선, 명암을 배제한 뚜렷한 색상의 대비, 전체의 균형 속에 대단한 형태의 왜곡과 단순미 속에 박력이 넘치는 형태 등으로 강조된 모습을 보인다. 한국 호랑이의 그림은 측면과 정면의 호랑이 얼굴을 일찍이 입체과 화가들이 표현한 동시적, 추상적 표현 방법을 구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사물을 정면에서 본 것, 측면에서 본 것, 심지어 뒷면에서 본 것까지 동시에 그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체 자체가 부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나, 어떤 사물을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려는 의도와 태도는 획기적인 창조적 태도에서만 가능하다. 실에 물감을 묻혀서 그리는 실 그림은 흰 종이를 평판으로 삼고 그 위에 한 장의 백지를 덮어 무거운 것으로 누른 후 실을 잡아 빼는 방법으로 추상적이고 기이한 우연적인 효과를 이용한 그림으로 당시에는 부적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 (2) 색채

색채란 민족의 마음의 표현으로서 인류가 조형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사용되어 온 조형언어라고 할 수 있다. 조형의 요소 중에서 색은 다른 요소에 비하여 훨씬 감각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사회는 색에 관하여 감각적인 욕구를 천시하고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한국 민화에서는 감각적인 색이 거부감 없이 사용되었다.

민화에서 표출된 색채는 오방색과 무채색을 들 수 있다.

정통회화가 수묵 위주의 절제된 색채를 사용하는데 비해 민화에서는 강렬한 원색이 사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양반들은 인간의 감각적 욕구를 천한 것으로 여기어 그것을 절제하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통회화에서 조형적 요소 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가장 감각적인 요소인 색이 절제된 것이다. 반면 민중들은 이러한 절제를 따라야 할 법도가 없었다. 민중들은 기본적 욕구에 충실하였고 원색이 주는 감각적 쾌감을 좋아하여 원색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색채의 사용으로 인해 민화만의 독특한 색채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김철순(1991)은 ‘민화의 색은 세상을 푸른색, 붉은색, 검정색, 흰색, 노란색의 다섯 가지의 조화와 변화로 본 무교와 오행사상 등에서 유래했으며 그 변화와 배합, 안분에는 회화적인 원칙 말고도 철학적인 뜻이 담겨있다’<sup>9)</sup>고 하였다. 민화에서는 전통회화의 수묵화와는 달리 오방색을 주로 사용하였다.

오방색은 오정색(五正色) 또는 오채(五彩)라고 하고 오방색의 방(方)은 방향을 가리키며 흑(黑), 백(白), 적(赤), 청(靑), 황(黃)은 단순한 색만이 아니라 북(北), 서(西), 남(南), 동(東), 중앙(中央)을 뜻한다.

오방에는 각 방위에 해당하는 5가지 정색이 있고, 각 정색의 사이에는 5가지 간색이 있다. 정색의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의 적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이며, 이 중 청, 적, 황색은 양의 색이

고 흑과 백은 음의 색이다. 간색으로는 동방의 청색과 중앙의 황색 사이에 녹색이 있고, 동방의 청색과 서방의 백색 사이에는 벽색, 남방의 적색과 서방의 백색사이에는 홍색, 북방의 흑색과 중앙의 황색 사이에는 유향색, 북방의 흑색과 남방의 적색 사이에는 자색의 5가지가 있으며 모든 간색은 음의 색이다.

오행을 기본으로 한 원색들의 대비를 강조한 민화는 대상 하나하나의 고유성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채도와 색상이 높은 색채를 골라 개별적으로 칠하였으며 민화 대상 고유의 색보다 화면 속의 색의 조화를 중시하여 질서를 찾으려 했다. 붉은색 옆에 파란색을 똑같은 채도로 칠해 어느 한 색이 다른 색으로 인해 약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제각각인 것 같은 강렬한 색채지만 모두 한데 어우러지는 상생적인 대비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민화에서 채도와 명도가 높은 원색의 사용은 집 안팎을 장식하는 데 있어 분위기를 밝고 화사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민화 속에서 원색이 사용되었던 방법을 보면 중심적인 색채를 기준으로 전체의 색조가 증가의 원리에 따라 조절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등장하는 각 사물의 개별적 색상에 따라 가장 강렬하고 밝은 색채가 칠해져있다.

민화의 색채는 대부분 원색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미색이나 무채색으로 이루어져 소박한 색채를 쓴 경우도 종종 보인다. 민화는 동양회화 같은 여백을 표현한다. 여백은 창조적 상상력의 유발과 예술 감상의 신천지를 제공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여백은 작품을 감상하는 자에게 더 많은 연상과 상상을 동원케 하고 무념, 무관, 무욕의 세계로 승화하는 창작과 감상의 최고 경지로 가는 통로이기도 하다.

## (3) 구도

민화는 공간구성 방법이 독특하다. 민화는 전

후, 좌우, 상하, 고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괄된 시점이나 작법을 무시하고 그렸다. 즉 시점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민화의 주제들은 표현성에 있어서 자연과 눈에 보이는 사물묘사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없는 것이라도 상상을 동원하여 표현하게 됨으로써 독특한 화면과 공간을 구성한다.

민화 속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시점이 뒤섞여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의 원리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물체와 대상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 화면에 전면을 동시에 배치해 놓은 것이 그것이다.

원근법이란 원래 자아중심의 시각에 의해 외양을 합리적, 논리적으로 그려내는 방법이다. 서양 문화권에서는 인간과 자연과의 대립을 전제로 하여 차가운 분석적 태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공간구성에서 원근법이 잘 나타나있다.<sup>7)</sup> 반면 민화에선 원근법이 거의 무시되어 있다. 예컨대 『금강산도』에 산맥, 강, 나무, 금강산의 명소가 그려져 있는데 원근법이 무시된 채 능선을 따라 소나무를 둘러 그려 독특한 조형감을 보여준다. 서양과의 세계관과는 다르게 ‘나’와 ‘세상’ 혹은 ‘자연’과의 거리가 대립적이지 않고 서로 동화되는 세계관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화폭 속에서 세상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민화에서 간혹 ‘역원근법’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원근법이 무시된 상태에서 나온 방법의 한 가지인데, 이러한 방법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하고 일관성 없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화에서 가끔 보이는 역원근법적 표현은 의도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근법을 무시한 가운데서 나타난 소박한 표현의 하나이다.

민화는 전통회화에서 보다 훨씬 자유분방한 시점의 이동형상을 한 화면 속에서 나타낸다. 여기에 그려진 대상물들은 현실적인 물체감위에 여러 상황에 관념적 공간들이 동시에 펼쳐 보이는 신선

한 복합 상을 연출하게 되는 것이다. 서구문화권에서는 르네상스 이래 일시점 원리를 최고의 시점 원리로 존중해 왔다. 그들 문화권의 회화는 일시점에 의거한 대상과약을 기본으로 하는 시형식(視形式)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해 동양화에서는 시점이 이리저리 이동해 나아가는 다시점을 중요한 시형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다시점에 의한 사물의 포착법은, 몇몇 그림들에서 마치 현대의 큐비즘회화와 유사한 분위기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 현대 미술에서 서양 회화도 그들이 전통적으로 고수해 왔던 일시점의 화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점화법을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큐비즘 회화이다. 한국 민화의 몇몇 그림들이 큐비즘 회화와 유사한 분위기를 보이는 이유도 바로 다시점 화법이라고 하는 공통성 때문이다.

민화에 표현되는 사물들이 어떤 경우는 유기적인 연관성이 없이 표현되기도 하고 각각의 사물은 일정하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묘사된다. 민화에는 서민들이 생각하는 사물에 대한 관념 그대로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묘사되었다.

민화의 원근법무시와 다시점과 같은 표현의 사례적 이탈과 자유분방함은 현대적 디자인으로 변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과 더불어 미술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 2) 내용적 미적 특성

### (1) 대중성

민화는 일반 대중의 실용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려진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그림으로 인간의 생활과 밀착되어 생활공간과 사람을 하나로 맺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하였다.

서민들의 민화에는 전통 회화에 비해 잘 그려지지 않는 소재가 발달하였다. 『백동자도』는 아들을 많이 낳기 바라는 대중의 관념적인 표현에서

그린 그림이다. 『백동자도』에 등장하는 어린이는 줄싸움, 전쟁놀이, 암행어사 놀이, 썰매타기, 닭싸움 구경, 고기잡이, 나비잡이 등을 하며 노는 모습을 그렸다.

민화는 작품 주제로 생활 속 서민들이 일 하는 모습, 쉬는 모습, 놀이를 즐기는 모습 등 삶과 애환이 묻어나는 친숙한 풍경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그려진 민화가 쓰인 용도를 살펴보면 민화가 얼마나 깊숙하게 서민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민화는 오늘날의 벽지 혹은 병풍의 역할을 했다. 벽의 일부가 되어 보이는 시선을 투명하게 무력화시키고 안도감과 해방감을 복돋게 하는 것이었다. 주변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매체로서 조그만 방을 열린 장소로 만들고 투명한 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장벽화(벽그림)는 벽에 직접 도배하는 경우도 있고 옮겨서 활용하기가 가능한 병풍, 족자로 벽 또는 그 가까운 장소에 장식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족자, 대문에 붙이는 입춘대길, 수복강령 등으로 사용된 생활필수품이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한 민화는 궁중용 민화에 비해 크기가 작아지고, 비싼 견본(絹本) 대신 지본(紙本)이 많아졌으며, 전문화공이 아닌 서민이 그린 작품으로 그 완성도나 화법이 낮고 서툰게 보이는 작품도 보이나 오히려 민화 특유의 아름다운 미적 특징이 보이는 작품이 많이 보인다.

전문적인 화가보다는 떠돌이 화가 즉 비전문적인 화공들에 의해서 그려진 화조화는 비전문 화공들에게 있어서는 생계의 수단이었고, 대중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화였다. 무명성이 특징인 그들에게는 특별한 작가의 개성이나 당시 화법 등은 염려할 필요성이 없는 향목이어서 더욱더 자유롭고 편안한 구성과 필체로 그림을 전개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창조성 보다는 대중의 기호와 필요에 맞는 생활화였던 민화는 많은 대중의 구매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답습되어 오는 ‘뽀 그림’이

었다.

즉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가운데 그림 본래의 상류층과 왕권중심의 유교적 가치관이 토속적이고 종교적인 대중의 세계관으로 변모되었다. 지배층의 세계관이 아닌 자신들의 염원과 성원이 깃든 그들만의 세계관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서민들의 소박하고 진실한 미의식은 그림의 독특한 미적 특질로 묻어나온다.<sup>8)</sup>

## (2) 상징성

민화의 상징적 표현은 공동체 의식을 구현한 것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희노애락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민중이 소망하던 염원들은 현세의 복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상 세계나 종교적인 뜻을 담기도 한다.

민화에는 인간으로서의 소박한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 벽사수호, 부귀영화, 학문선양, 무병장수, 남녀화합, 다남, 자연승배와 경모사상 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민화는 토속신앙이 반영되어 주술적인 효과를 위한 매개체로 이용되었다. 민화의 화제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기원하는 민간 신앙의 믿음과 바람직한 인간의 행동 규범인 윤리 교육에 있으며 합일목적 기대가치에 따라 전자는 민간신앙 상징, 후자는 도덕상징 또는 교화상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민화에는 장식적 필요에 의한 것이든 주술적 필요에 의한 것이든 많은 상징적인 도상들이 내포되어 있다. 더욱이 우리의 조상들은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키기 위해 표현 방법이나 소재 해석을 늘 새로이 했으며 이를 통해 민화는 더욱 독특하게 발전되어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화의 상징성은 그 지방의 문화적인 환경이나 개인적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변형되고 침식되어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롭고 흥미로운 그림들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물고기가 한꺼번에 많은 알을 낳는



다는 점은 다산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연못 속에 유유히 떠다니는 잉어는 출세와 부귀를, 폭포를 거슬러 뛰어넘는 잉어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입신출세를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벽사의 의미를 지닌 호랑이 그림과 용 그림을 그려 걸어둠으로써 잡귀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문자도를 대표하는 『효제문자도』는 유교의 도덕 강령으로 선비의 덕목지침이기도 했던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義), 염(廉), 치(恥) 여덟 글자에 회화적 요소를 가미해서 일정한 기본 도상에 따라 고사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그려 넣었다.

민화에 많이 사용된 화려한 오방색의 상징성을 살펴보면 황색은 중심색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조화롭게 하며 토를 상징하고, 적색은 따뜻함과 만물의 번성과 火를 상징한다. 청색은 창조, 불멸, 생명, 희망과 木를 상징하고, 백색은 결백, 진실, 순결 등을 그리고 金을 상징하며, 흑색은 어둠과 죽음 그리고 水를 상징한다.<sup>9)</sup> 민화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오방색을 사용함으로써 미적 아름다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술적 염원이 담긴 상징성이 강한 그림이다.

어느 시대의 그림이나 이러한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민화는 상징적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 표현 방법이나 소재 해석을 늘 새로이 하여 더 독특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민화의 상징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의해 공유되고 조형적으로 구체화되어 주술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였다. 이 같은 민화의 상징성은 사물에 벽사와 길상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이미지를 조형화 시키는 부분을 말한다.<sup>10)</sup>

### (3) 해학성

민화의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선과 색 그리고 면이 섬세하게 조화됨으로써 장식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해학적 감성을 유발하는데 있다. 해학

은 현실의 개개의 사실들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관찰에 의해 세계나 인생사의 일들을 간섭하는 것으로 불합리나 모순을 표현함에 있어 한층 깊게 통찰하여 동정적으로 감싸는 것을 말한다.

조선후기 민화에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그 유머의 극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해학적인 것은 주로 설화가 그 바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호랑이를 골려주는 까치 이야기나 토끼 꼬임에 빠진 호랑이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렇듯 호랑이는 특히 해학면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이와 같이 민화는 조선시대 후기의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으로 해학과 풍자를 통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다. 민중들은 민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집단적인 사상을 표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민화에 담긴 해학과 풍자는 유교중심의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사대부들이나 지배 계층의 불합리한 횡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을 위한 수단이 되었다.

### (4) 실용성

민화는 생활화, 실용화로서 한국인의 주거공간에서의 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했던 생활필수품으로 모든 사람의 그림이었다. 민화는 대부분 실용화 내지는 생활화로서 일상의 생활공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위로는 왕가로부터 서민 아낙네의 규방, 그리고 절 서당 혼례식장등 생활공간에 맞는 그림을 장식하는 것이 관례였었다. 구체적인 그림의 내용을 보면 특정적인 실용이 큰 것으로 전각과 절 등의 벽화, 예배용의 신화, 부처그림, 교육을 위한 고사 인물, 벽사, 기원의 세화 등을 들 수 있다.<sup>11)</sup>

민화는 가옥의 벽, 다락문, 병풍과 족자, 문살과 창호지 등 벽장식 뿐 아니라 꽃가마를 치장하는 호피도, 도자기, 가구, 문방구, 돛자리 등 생활용품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민화는 실용적인 목적이 강한 그림으로 대개 길상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밝고 장식적이며 화려한 분위기로 생활과 하나 되어 삶을 넉넉하고 윤택하게 해주었다. 민화는

조선 후기에 밀착된 생활문화의 소산으로, 소박한 생활의 필요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전해 내려오는 도상의 틀을 존중하면서 그려졌다. 민화는 삶과 일치된 예술로서 일상생활에 사용되던 실용화이다. 작가가 자신을 내세우고 표현하기보다는 사회의 수요에 충실했기 때문에 솔직하고 가식이 없는 진실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민화를 통하여 일상속의 미학을 추구하는 선조들의 단면을 읽을 수 있다.

### III. 민화를 응용한 현대복식디자인 사례

민화는 우리민중의 의식구조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민족의 생활양식이 발전된 고유의 예술로 어느 나라의 예술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회화를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민화는 때때로 실제와 다르게 표현되어 현대 의상디자인에서 응용되는 민화의 이미지는 그 원래의 의미와 많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의상디자인에 활용된 민화의 특성을 색채와 문양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현대 의상디자인에서 민화라 하여 명확히 구분되는 의상디자인의 사례를 가늠하기 어려움으로 복식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 민화의 특성이 드러나는 색채, 문양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의상사례의 표현기법을 통하여 민화의 적용이 200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작품을 가지고 이를 앞서 민화의 미적 특성에서 나타난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중성

민화를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중에 나타난

대중성은 대중의 생활 속에 삶과 애환이 묻어있는 친숙한 풍경이나 모티브를 사용한 사례, 민중들이 좋아하는 기본적 욕구와 감각적 쾌감에 충실한 강렬한 원색의 오방색을 사용한 사례, 입기 편한 아이템과 저렴한 소재를 선택한 사례,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대중들이 쉽게 즐기도록 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상봉은 2009년 F/W에서 민화의 모티브를 응용한 의상디자인에서 신윤복의 『미인도』를 활용하였다. 작품에서 미인도를 현대적 블랙코트 한 면 전면에 사실적으로 프린트하여 대중적이면서 에스닉한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젊은 대중들이 즐겨 입는 블랙 탑 아이템 전면에 매우 사실적으로 민화에서 응용한 모란 자수를 놓았다.

현대복식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색채는 한국의 전통적인 백색, 천연염료를 사용한 자연색에서 보이는 담담한 색조, 청, 백, 적, 흑, 황색의 오방색과 오간색을 배색하여 사용한다. 김정희는 여성들에게 가장 대중적 아이템인 백색의 블라우스와 스커트에 오방색이 들어간 색동원단을 사용하여 프릴 등의 디테일을 주어 장식하였다. 간호섭의 족자의(簇子依)는 한 폭의 민화가 그려져 있는 족자를 보는 듯하다. 민화를 서민들이 주로 착용하던 무채색으로 비딩과 자수를 놓아 현대적이고 대중적으로 표현하였다.

#### 2. 상징성

의상의 조형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는 문양은 생활 중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므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를 사용하는 인간의 생활감정의 표현이기도 하며 각 시대나 민족의 독특한 양식을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 패션디자인에서 문양은 의복의 구조적 선보다 더 빨리 시선을 끌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의상의 색과 함께 전통미를 나타내는 전통문양이 현대 의상디자인에

서 상징성으로 쓰이고 있다. 이준화는 효제문자도 효(孝), 제(悌), 충(忠), 신(信), 예(禮), 의(儀), 염(廉), 치(恥)등 여덟 글자를 화제로 일상에서 반복되는 깨달음과 배움을 의상에 시리즈로 표현하였다. 부끄러움을 이는 정신, ‘치(恥)’를 검정색 재킷에 디지털 프린팅과 비딩기법을 사용하여 상징성으로 표현하였다. 김혜경은 모시소재를 가지고 원색의 오방색을 강렬하게 배색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현대적인 선과 면을 사용하여 재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내고 있다. 송혜련은 만물의 번성과 火를 상징하는 적색의 원피스에 호랑이 문양이 핸드 페인팅 된 부스띠에를 매치하여 한국의 열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모란은 민화에 등장하는 꽃 중에 출현 빈도수가 가장 많으며 부귀를 상징하여 생활공간의 장식이나 의례공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안윤정의 작품은 한국 전통 혼례복인 활옷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드레스이다. 소매 전면에 행복을 상징하는 모란문양의 자수를 넣었다. 송혜련은 2007 S/S 서울 컬렉션에서 동양적인 문양을 현대적 요소와 조화, 믹스하여 다양한 실루엣으로 새로운 모던 룩을 디자인 하였는데, 스커트 자락을 돌담과 같이 분할된 면에 다양한 상징성이 있는 전통 문양을 가죽으로 패치워크 하여 스커트 전체에 벽사와 길상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 3. 해학성

민화는 조선시대 후기 개화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해학과 풍자를 통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였다. 해학성이 나타난 의상디자인 사례에서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한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 일반적으로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사물의 확대나 변형을 통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한 사례와 오브제를 접목시켜 플라주 표현기법으로 해학성을 나타낸 사례도 보인다. JI HAYE

의 드레스는 큰 까치호랑이 한마리가 드레스 전체 화면을 압도하여 호랑이 원래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해학적으로 왜곡시켰다. 민화에 자주 등장하는 호랑이의 호피 모티브를 몸 전체에 확대하여 몸에 밀착되는 보디 수트의 원래 의미에 추상적인 색시미를 느끼게 한다. 박화순은 연꽃 잎 모티브를 플라주 기법으로 원피스 위에 다양한 색상으로 재미있게 입체적으로 표현하였고, 진경옥은 무채색으로 연꽃을 플라주하여 해학적으로 조형적 작품을 보여주었다.

### 4. 실용성

민화는 한국적이어서 한복이나 어울릴 것이란 통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한송은 민화의 문자도를 실용적인 청색 티셔츠에 프린트하였고, 장광효는 실용적인 남성 속웃인 트렁크에 민화를 그려 넣었다. 아이템의 선정뿐만 아니라 소재의 선택에서도 실용성을 주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김혜수는 데님이라는 실용적 소재를 사용해 색동의 꽃 모티브를 장식한 원피스 드레스를 디자인 하였다. 이영주의 패션쇼 『기원』에는 민화작가 서공임이 직접 원단에 그린 그림들을 실용적으로 응용하여 한국미가 풍긴다. 예컨대 호랑이가 그려진 실용적인 민소매 파티복, 스커트 전체에 민화 조충도가 그려진 민소매 파티복 등이 있다.

이상의 작품을 통해 2000년대부터 2010년까지 국내 의상 디자이너와 작가가 민화의 모티브를 현대 의상에 어떻게 응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화의 특성과 표현 이미지 및 기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현대패션에 나타난 민화의 특성과 표현이미지 및 기법

민화의 특성과 표현이미지 및 기법		민화 작품		현대패션의 응용 1	현대패션의 응용 2
대중성	대중적 이미지/ 풍속도, 화조화				
		<p>&lt;그림 1&gt; 『미인도』, 신윤복 (출처: 간송미술관 소장)</p>	<p>&lt;그림 2&gt; 『모란도』, 작가미상 (출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p>	<p>&lt;그림 3&gt; 이상봉, 2009 F/W (출처: <a href="http://www.firs.tvview.com">http://www.firs.tvview.com</a>)</p>	<p>&lt;그림 4&gt; 이상봉, 2004 S/S (출처: <a href="http://www.firs.tvview.com">http://www.firs.tvview.com</a>)</p>
상징성	대중적 색채/ 원색, 무채색				
		<p>&lt;그림 5&gt; 『죽실봉황도』, 작가미상 (출처: 조선민화 박물관 소장)</p>	<p>&lt;그림 6&gt; 『아해도』, 작가미상 (출처: 계명대학교 박물관)</p>	<p>&lt;그림 7&gt; 『색등우입히기』, 김정희 (출처: 『한국패션문화 협회 패션아트도록』, 2004, p.34)</p>	<p>&lt;그림 8&gt; 『족자의(簇子依)』, 간호섭 (출처: 『한국패션문화 협회 ECO FUN 도록』, 2008, p.59)</p>
상징성	문자도				
		<p>&lt;그림 9&gt; 『문자도』, 복합성 (출처: 『행복이 가득한 민화』, 2007, p.112)</p>	<p>&lt;그림 10&gt; 『문자도』, 작가미상 (출처: 호암 미술관 소장)</p>	<p>&lt;그림 11&gt; 『치(恥)』, 이준화, (출처: 『Fashion Art』, 2009, p.62)</p>	<p>&lt;그림 12&gt; 『신(信)』, 이준화 (출처: 『Fashion Art』, 2009, p.63)</p>
	오방색				
		<p>&lt;그림 13&gt; 『책가도』, 작가미상 (출처: 통도사성보 박물관 소장)</p>		<p>&lt;그림 14&gt; 김혜경, (출처: 『Fashion Art』, 2009, p.79)</p>	<p>&lt;그림 15&gt;『Passion of Korea』, 송혜련 (출처: 『한국패션문화 협회 패션아트도록』, 2009, p.15)</p>

<표 1> 계속

민화의 특성과 표현이미지 및 기법		민화 작품	현대패션의 응용 1	현대패션의 응용 2
상징성	문양 이미지	 <p>&lt;그림 16&gt; 『화조화, 작가미상』 (출처: 가회박물관 소장)</p>	 <p>&lt;그림 17&gt; 안윤정, 2007 S/S (출처: 『Seoul Collection Lookbook』, 2006, p.90)</p>	 <p>&lt;그림 18&gt; 송혜란, 2007 S/S (출처: 『World Book Moda』, 2007, p.230)</p>
해학성	동물의 의인화/ 까치호랑이, 사물 변형확대	 <p>&lt;그림 19&gt; 『까치호랑이』, 작가미상 (출처: 일본개인소장)</p>	 <p>&lt;그림 20&gt; JI HAYE, 2002 F/W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a>)</p>	 <p>&lt;그림 21&gt; 이상봉, 2009 F/W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a>)</p>
	추상기법/ 콜라주	 <p>&lt;그림 22&gt; 『실 그림』, 작가미상 (출처: 『민화 II』, 2000, p.824)</p>	 <p>&lt;그림 23&gt; 박화순, 2009 (출처: 『Fashion Art』, 2009, p.40)</p>	 <p>&lt;그림 24&gt; 진경옥, 2009 (출처: 『Fashion Art』, 2009, p.203)</p>
실용성	실활 필수품/ 실용 아이템	 <p>&lt;그림 25&gt; 『백자청화호작문호』, 작가미상 (출처: 국립경주박물관 소장)</p>	 <p>&lt;그림 26&gt; 한승, 2005 F/W (출처: <a href="http://www.firstview.com">http://www.firstview.com</a>)</p>	 <p>&lt;그림 27&gt; 김혜수 (출처: 『Fashion Art』, 2009, p.77)</p>

## IV. 작품 제작

### 1. 작품제작 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제화시대에 획일화된 문화현상에 반하여 전통의 현대화와 한국 패션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우리의 정서와 미의 특성이 잘 표현된 민화를 현대 의상디자인으로 응용함으로써 독창적인 전통미의 실용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리 전통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 한국 전통 조형의 미적 특성을 현대에 맞게 응용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의상디자인에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민화의 독창성을 국제적 감각에 맞는 디자인으로 승화시킴으로서 우리 의상디자인의 현대화, 세계화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려 한다.

일반적 고찰을 통해 민화의 미적 특성인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의 네 가지 유사성을 추출해 냈다. 민화의 형태, 색채, 구도 등의 특성과 모티브를 토대로 한국적 정서와 문화가 이입된 새로운 이미지로 모티브를 재창출하고 이를 응용하여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 제작된 작품은 연구자가 2007년 S/S 서울 컬렉션에 발표한 것과 그 후속으로 발전된 작품들이다. 민화의 모티브를 살리면서 현대적인 실루엣과 매치시켜 소재, 기법, 색상 등을 조화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여성스럽고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으로 전통을 재현하면서 실질적인 기능성과 장식성,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고감각의 현대 의상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작품의 사용된 소재는 면, 실크, 데님 등이며 작품에 사용된 기법은 디지털 프린팅, 실크 스크린, 풀라주, 패치워크 등이다. 민화의 화려한 원색 컬러배색을 강조하기 위해 무채색인 화이트를 주조색으로 사용하고 전통적 색상과 현대적 색상을 매치시키기 위해 한국 전통 색상인 오방색과 오간색

을 디지털 프린팅과 패치워크 기법을 응용해 표현하였다.

작품의 전체적인 구성은 대중성, 상징성, 해학성, 실용성의 민화의 미적특성 4가지를 각각 1점씩 총 4착장을 디자인 하였다. 각 주제에 맞추어 모티브와 기법을 선정하여 미적특성을 부각시켜 디자인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다문화시대에 맞게 동양의 신비감과 서양의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컨셉으로 여성을 위한 드레스, 재킷, 스커트, 블라우스, 팬츠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처럼 민화의 미적특성을 바탕으로 제작된 의상은 의복과 전통의 관련성을 재인식시키고 현대 패션을 조형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작품해설

작품 I 은 민화의 풍속도에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미인도 모티브로 색채요소를 사용하여 대중성을 드러낸 작품이다. 한복의 실루엣과 서양의 캅테일 드레스를 결합한 원피스로 탑 부분은 고체도의 다양한 색상의 원색을 배색한 디지털 프린트로 제작한 실크 소재로 고급스러움과 발랄한 분위기를 동시에 연출하였다. 스커트 부분의 색상은 한국의 색으로 대표되는 대중적인 흰색을 사용하여 단아하게 표현하고 탑 부분에 사용된 원색에 분리효과를 주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미인도를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이미지화한 작품이다. 실크 스크린 한 안감을 걸감 레이스와 같이 사용하여 은은하고 넓게 미치는 투명성을 통하여 전통미와 현대미의 결합을 시도한 디자인이다.

작품 II 는 민화의 문자도에서 가져온 효(孝)와 염(廉)의 문자, 봉황과 물고기의 모티브가 의미하는 상징성과 색채의 상징성을 조형적으로 접목시킨 블라우스와 팬츠이다. 서양의 베스트와 한복의 저고리에서 비롯된 깃을 접목하여 독창적인 블라

작품 I			
미적특성	대중성		
디자인			
	작품 I 모티브 『미인도』, 신윤복	작품 I 변형 이미지	
아이템	원피스 드레스		
소재 / 기법	실크, 폴리에스테르 / 디지털 프린팅, 실크스크린		

작품 II			
미적특성	상징성		
디자인			
	작품 II 모티브 『문자도』	작품 II 변형 이미지	
아이템	블라우스, 팬츠		
소재 / 기법	면, 페딩솜 / 누빔, 패치워크, 디지털프린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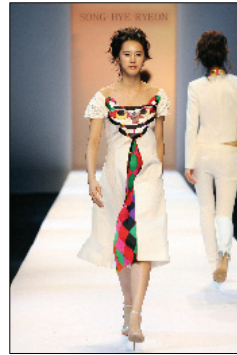
우스를 디자인하여 단아한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깃에는 한복 소재인 얇게 비치는 투명한 오간자를 사용하여 한국적 미를 드러내려고 하였다. 섬세한 누빔 기법은 한국적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연출해 준다. 팬츠 한쪽에 오방색을 응용하여 다양한 색상을 패치워크하고 그 위에 그래픽티 선을 더한 프린트 된 문자도를 어플리케이션하여 현대적 감각과 한국적인 정서가 상징적으로 은근하게 표현된 작품이다.

작품III는 본 작품은 민화의 가치 호랑이 얼굴을 플라쥬 기법을 응용하여 해학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흰색 원피스는 어깨에 핀터이 잡혀있고, 스커

트 앞 중심에는 이중 맞추름을 넣어 걸을 때마다 안의 화려한 원색으로 배색된 원단이 보여 색채가 해학성을 극대화한다. 원피스 가슴부위에 용맹스러운 호랑이 얼굴의 원래 의미는 상실하고 가볍게 호랑이의 얼굴만 패치워크하여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 사용된 가치 호랑이가 민화에 나타났던 동물들과 같이 대중예술의 현대적인 캐릭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품IV는 본 작품은 소재로 데님을 선택했고, 아이템으로 재킷과 팬츠를 선택하여 실용성을 표현한다. 재킷은 여러 종류의 재질이 다른 실용적인 무채색 데님을 패치워크하여 스트라이프가 형성된 현

작품Ⅲ		
미적특성	해학성	
디자인		
	작품Ⅲ 모티브 『가치호랑이』	작품Ⅲ 변형 이미지
아이템	원피스 드레스	
소재 / 기법	면, 실크 / 패치워크, 디지털 프린팅	



작품Ⅳ		
미적특성	실용성	
디자인		
	작품Ⅳ 모티브 『모란도』	작품Ⅳ 변형 이미지
아이템	자켓, 팬츠	
소재 / 기법	데님 / 패치워크, 자수	



대적인 감각을 살리면서 경쾌한 느낌이 난다. 목둘레와 중심선의 선 장식은 단아한 한국의 이미지를 고취시킨다. 모란 모티브를 원형의 무채색으로 자수 놓아 외펜 형태로 재킷에 배치하여 조형성을 준다. 팬츠 아랫단에는 명도 차이가 나는 데님을 사선의 스트라이프로 배색을 하여 재킷과 통일감을 주고 전체적으로 실용성을 주려고 한다. 실용성을 주기 위하여 팬츠를 7부 길이로 실용적인 소재를 결합하여 전통미와 현대미를 조화시킨 작품이다.

## V. 결론

현대 패션은 한 지역의 문화나 디자인이 세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아름다움의 표현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전환과 창의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민화는 민화가 지닌 다양성, 자유로움, 대중성을 여러 시각에서 재구성되고 변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민화의 개념과 정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알아보고 민화의 모티브를 바탕으로 민화의 종류를 분류하였다. 민화가 가지고 있는 미적특성을 알아



보고, 민화의 현대적 변용을 이룰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민화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얻은 미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화는 민중에 의해 그려졌고 발전된 대중적 예술로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염원을 담고 있으며 우리의 정신이 깃들여 있는 민간예술이며 귀중한 그림이다. 민화의 형태표현은 윤곽적인 선 처리로, 단순화나 과장되기도 하고, 반복적인 겹쳐짐으로 도식화되었다. 색채에서 한국 전통색인 오방색과 오간색을 기본으로 한 원색들의 대비가 많이 있었고 무채색으로 소박한 색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둘째, 민화는 일반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로서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서민들의 모습과 삶이 묻어나는 친숙한 이미지와 풍경을 주제로 표현하는 대중성이 있다. 셋째, 민화에는 벽사수호, 부귀영화, 학문선양, 무병장수, 남녀화합, 다남, 자연숭배와 경모사상 등 많은 상징적인 도상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상징적, 주술적 의미도 있다. 넷째, 민화는 동물을 의인화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비재현적인 표현이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해학성이 있다. 다섯째, 민화는 실용화 내지는 생활화로서 일상의 생활공간과 불가분의 관계로 생활필수품에 많이 그려지는 실용성이 있다.

민화를 응용한 현대 의상디자인 사례에서는 첫째, 대중의 생활 속에 삶과 애환이 묻어있는 친숙한 풍경이나 모티브를 사용, 민중들이 좋아하는 기본적 욕구와 감각적 쾌감에 충실한 강렬한 원색의 오방색을 사용, 입기 편한 아이템과 저렴한 소재를 선택, 대량생산이 가능한 디자인이나 기법을 사용하여 대중들이 쉽게 즐기도록 한 대중성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문양, 문자도, 오방색을 사용하였다. 셋째, 동물을 의인화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거나, 사물의 확대나 변형을 통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 오브제를 접목시켜 풀러주 기법으로 표현한 사례는 해학성을 보였다.

넷째, 티셔츠, 속옷, 파티복 등 일상에서 필요한 실용성 있는 아이템을 데님과 면과 같은 저렴한 실용적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함으로써 실용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민화의 미적특성을 현대적 시작으로 변용하고 형상화함으로써 다국적 시대에 우리민족 정서를 계승하면서 소비자의 고감각화에 맞는 고품격 의상디자인 작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 민화의 현대 복식에 도입은 디자인 개발에 있어 독창성과 고부가 가치의 패션 상품으로 부각시킬 수 있으며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도 반영함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한지수 (2007). 민화 화조화를 응용한 메이크업과 의상디자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 2) 임두빈 (1997). 민화란 무엇인가, 서울: 서문당, pp.30-31.
- 3) 김호연 (1978). 한국의 민화, 서울: 열화당, p.21.
- 4) 심정원 (2000). 민화의 현대적 변용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4.
- 5) 홍성훈 (2009). 한국 민화의 표현성과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7.
- 6) 김철순 (1991). 한국 민화논고, 서울: 예경산업사, p.197.
- 7) 임두빈. 앞의 책, p.52.
- 8) 이연제 (2002). 한국 민화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
- 9) 엄옥경 (2006). 오방색과 민화를 차용한 회화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 10) 이민정 (2007). 민화를 응용한 근·현대 작가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6.
- 11) 이종선, 윤열수 (2004). 익살과 재치 꿈꾸는 우리문화, 용인: 경기도 박물관, p.217.

# **A Study on Application of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Folk Paintings in Fashion Design**

**Song, Hye Ryeon<sup>+</sup> · Kim, Hye Kyung**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sup>+</sup>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 **Abstract**

In modern fashion design, new forms of expression and creative development for distinctive beauty are essential to pursuing global conception of culture and fashion in a local region. In the twenty-first century,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can also guarantee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nly when customers in other cultural regions recognize it as a universal beauty. Korean folk paintings created and developed by ordinary people include various symbolic meanings and aspirations as well as the spirit of our people. The splendid colors and formative art figures in folk paintings can compete in the international fashion market when combined with the art form of fashion design. This study is aimed at finding the comm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olk art, regarded as a symbolic painting of our national emotion and people's lives created by capitalism and consumer culture. This study is also aimed at applying folk paintings to fashion design by transforming and reforming folk paintings to have a more modern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will contribute to globalization of traditional beauty of Korea and creating unique modern fashion designs that represent Korean national emotions and sentiments. Folk paintings were analyzed focusing on artists who transformed folk art to modern art a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designs applying folk art. Designs presented in collections from 2000 to 2011 collections were analyzed as cases of modern fashion design applying folk art. Four pieces of modern fashion design were produced fully utilizing the advantages and properties of folk art motifs based on the common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olk, and based on formative analysis of the intention of creation, motifs, colors, materials and techniques of folk paintings.

Key words: Korean folk paintings, aesthetic characteristics, fashion design